



## 현대적 감각의 세련된 분위기

### 아몬드 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후문에 위치한 아몬드 본은 새롭게 태어났다.

그 자리에서만 8년간 영업을 해 왔기에 그 동안의 애착이 남아있어 옛 이름 그대로 살렸다 한다.

우선 아몬드 본은 들어가 보면 현대적 감각을 살린 심플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주는 공간임을 느끼게 한다. 흔히 볼 수 있는 빵사진은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절제된 인테리어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 가운데 천정의 미니라이트는 자칫 단조로워지기 쉬운 분위기에 포인트를 주어 또 다른 인테리어 감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아몬드 본이 15평 남짓한 작은 매장임에도 좁아 보이지 않는 이유는 쇼케이스와 벽의 색깔을 동일색으로 함으로써 쇼케이스가 튀어나오지 않아 넓어 보이게 했다. 또한 진열대 밑에 서랍장을 설치하여 시각적으로 한결 쾌적한 공간을 연출했기 때문이다.

원래의 입구자리에 스낵코너를 마련하고 새롭게 입구를 설치하는 과감한 공간변경은 아몬드 본을 더욱 넓게 보이게 한다.

그것은 슈퍼마켓으로 들어가는 곳으로 입구를 만들어, 슈퍼에서도 들어오기 쉽게하여 구매욕을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장입구의 전면을 유리로 노출시켜 한결 넓어보이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몬드 본의 특징은 아이디어 시설에 있다.

우연히 명동돈까스에 식사하러 가 그 곳에서 작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음식을 나르는 것을 보고 힌트를 얻어 적지않은 투자로 설치한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 공장과 지상매장을 연결, 동선의 효율을 높이고 있어 경제적인 인테리어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동선의 효과를 올리고 있는 엘리베이터  
빵·소품 등을 보관하는 서랍장





아몬드 본의 심플하고 세련된 매장.